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10.27

KOSDAQ | 자동차와부품

유니테크노 (241690)

사출기술로 넓혀가는 성장스토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2025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1) 2030년 매출액 2,000억원 달성 및 비모빌리티 매출 비중 목표 20%, 2) 2027년부터 영업이익률 7% 이상 유지, 3) 2030년까지 PBR 1.0배 및 ROE 10% 이상 달성, 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무배당을 통한 차등배당 실시, 5) 2026년부터 반기 배당 시행 등 중장기 성장 목표와 주주환원 정책 제시
- 2026년 9월 2030년 매출 목표를 2,20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모빌리티 매출 비중 목표를 20%에서 25%로 확대. 특히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7.2%로, 2027년부터 제시한 영업이익률 7% 이상의 수익성 목표를 조기에 충족할 전망
- 기존 무배당 기초에서 벗어나 2025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17원의 배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26년 9월 주당 23원(배당성향 5.0%)의 반기배당 실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배당과 차등배당 정책을 시행하며 기존에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 이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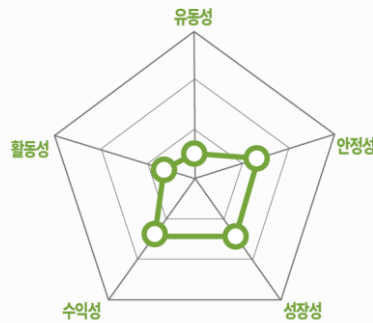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산업용 ESS 신규 수주 확보와 피지컬 AI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비모빌리티 사업 확대 추진 중
- 2025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이후 2025년 결산배당과 2026년 반기 배당을 실시하며 기존에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 이행 중
- 전기차/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공급 확대와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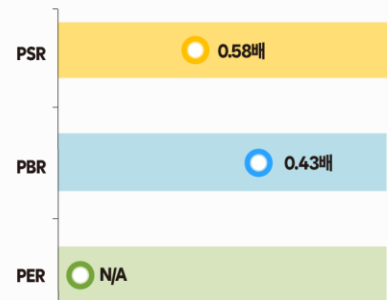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경기관련소비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경기관련소비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산업용 ESS, 피지컬 AI 등 비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자동차용 정밀 사출 부품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인서트 사출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ESS, 피지컬 AI 등 비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산업용 ESS 부품은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북미향 신규 수주 확보를 통해 중장기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 이와 함께 로봇 액추에이터용 정밀 사출 부품 개발 등 피지컬 AI 분야 진출도 추진 중. 당사는 비모빌리티 부문 매출액을 2025년 70억원에서 2030년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을 7%에서 25%까지 높일 계획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 도입

2025년 9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성장 목표와 함께 차등배당 및 반기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도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배당을 통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차등 배당을 실시한다는 방침. 실제로 2026년 4월 주당 17원의 결산배당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주당 23원의 반기배당을 실시하며 기존에 제시한 정책을 이행 중. 기존 무배당 기조에서 벗어나 주주환원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시행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

부품 공급 확대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2026년 매출액은 1,298억원(+21.1% YoY), 영업이익은 94억원(+355.2% YoY)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할 전망. 글로벌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공급 확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전년도 신규 공장 설비 이전 및 안정화 과정에서의 일회성 비용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산 2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7.2%(+5.3%p YoY)로 크게 개선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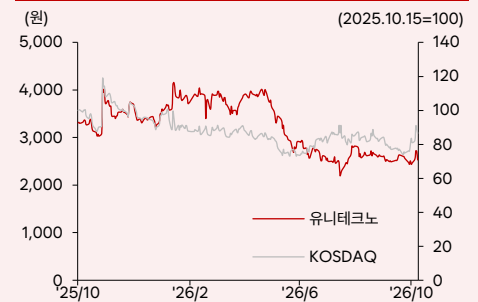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824	1,019	1,051	1,072	1,298
YoY(%)	31	23.7	3.2	1.9	21.1
영업이익(억원)	61	114	81	21	94
OP 마진(%)	7.4	11.2	7.7	1.9	7.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9	91	106	-32	73
EPS(원)	195	365	434	-131	297
YoY(%)	-50.1	86.9	18.9	적전	흑전
PER(배)	17.9	11.3	7.0	N/A	9.3
PSR(배)	1.1	1.0	0.7	0.8	0.5
EV/EBITDA(배)	9.2	7.6	9.5	18.1	8.1
PBR(배)	0.7	0.8	0.5	0.6	0.5
ROE(%)	4.7	7.5	8.0	-2.3	5.2
배당수익률(%)	0.0	0.0	0.0	0.5	1.4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23)	2,760원
52주 최고가	4,160원
52주 최저가	2,200원
KOSDAQ (10/23)	751.69p
자본금	125억원
시가총액	67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6억원
외국인지분율	0.91%
주요주주	이좌영 외 2인 64.0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8	-30.2	-17.6
상대주가	24.5	9.0	-4.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시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회사연혁

유니테크노는 EP사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ESS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유니테크노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사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ESS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93년 개인기업인 대성유니테크노로 설립된 후 2000년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EP 사출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2006년 사출 부문에서 현대차그룹의 SQ-Mark를 획득하며, 현대차그룹 2차 협력사로서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2012년에는 아산공장을 설립하여 MDPS, 모터 부품 등 자동차 부품 전용 생산 기반을 확대했다.

축적된 EP 사출 기술을 바탕으로, 경량화 수요가 확대되는 배터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16년 12V 저전압시 스템 배터리 케이스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2017년 부산공장과 2019년 중국 강소공장에서 배터리 케이스를 양산 하여 삼성SDI 향으로 공급하였다. 2021년에는 ESS 원통형 배터리 셀 케이스, 2023년에는 전기차용 고전압 커넥터 양 산 개발에 성공하며 배터리 및 전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또한 2024년 부산 2공장, 2025년 멕시코 공장을 준공하여 EV부품/ESS 관련 연 1,900억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동사가 보유한 플라스틱 정밀 사출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로봇, 조선 등 비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 대할 계획이다. 특히 피지컬시 분야에서는 2017년 동사의 특수관계인 출자로 설립된 엔엠씨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역 량을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엔엠씨는 2025년 AMR용 구동모터/AI추종 로봇 감속기 등의 납품을 시작하고, AMR용 액추에이터와 A드론용 모터 개발을 완료했다. 유니테크노는 2025년 피지컬시 양산기술연구소를 개소하고 2026년 피지컬시 관련 사업목적지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해 4월부터 AMR용 액추에이터 샘플 공급을 시작하였다. 향후 2028년 AMR 액추에이터 부품 양산을 거쳐 2030년 완성차 업체의 로봇 파운드리 공급망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니테크노 연혁

1993~2014	2015~2020	2021~
1993 대성유니테크노 설립(개인) 2000 (주)유니테크노 법인 전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재난법인 한국품질재단) (ISO 9001:2009 / ISO 9001:2008 - 자동차용 파워트레인 및 모터용 부품의 사출성형 및 조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품질재단) 2005 현대차그룹 SQ-MARK 획득 (사출부문) 환경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2004 / KS ISO 14001:2009 - 자동차용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품이 생산) 2009 HMC SQ-MARK LEVEL-UP (사출부문) (현대기아차, 델파이파워트레인) 2011 500만발 수출탑 수상 2012 (주)유니테크노 아산공장 설립 2015 유니기전위해유한회사 계열사 편입 (지분율 100%)	2015 (주)유니테크노 아산공장 설립 유니기전위해유한회사 계열사 편입 (지분율 100%) 201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한국품질재단) (ISO/TS 16949:2009 - 파워트레인 및 모터용 부품의 사출성형 및 조립) 12V 저전압시스템 배터리 케이스 개발 종속회사 투자: 유니기전(강소) 유한공사 (지분율 100%, 자본금 503백만원) 2017 코스닥시장 상장 2018 부산공장 Battery Case 양산 2019 유니테크노 제1회 전한사채 발행 (권면총액 80억원, 전환가액 1주당 16,085원, 금리 0%) 특허등록: 제10-1974-6070000호(특허청) (차량용 배터리 셀 케이스 냉각시스템) 중국 강소공장 Battery Case 양산 2020 현대차그룹 SQ-Mark 추가(전기조립부문) 부산 본사 확장 이전	2021 SBW(Shift By Wire: 자동변속기) 부품 양산 ESS 원통형 배터리 셀 케이스 양산 개발 2023 대표이사의 변경변경전 대표이사: 이좌영 변경후 대표이사: 이좌영, 이시은, 이만규 (공동대표) 전기차용 고전압 Connector 양산 개발 부산 신공정(본사) 착공 2024 멕시코 현지법인 (유니테크노 멕시코(Uniteknomex)) 설립 부산 제2공장 준공 (생곡동) 부산 산업대상 기술부문 수상 2025 멕시코 공장 완공 산업용 ESS 부품 양산 멕시코 공장 시험가동 피지컬시 양산기술 연구소 개소 2026 피지컬시 관련 사업목적지 추가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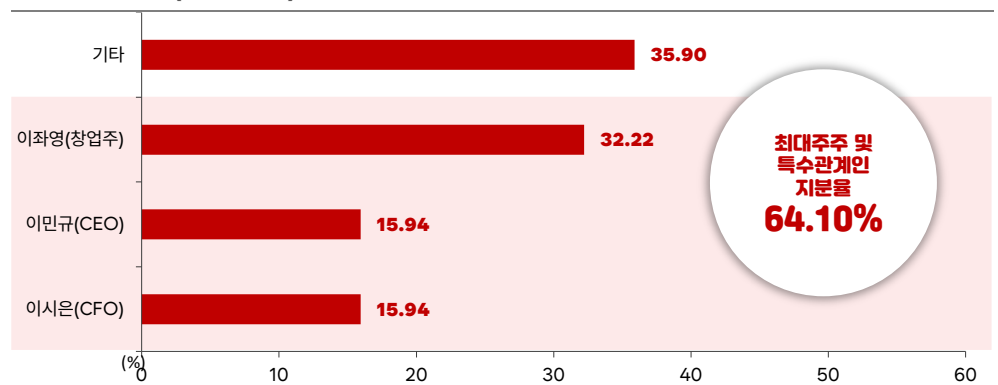
주주구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64.10%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유니테크노의 최대주주는 이좌영 대표이사로, 32.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좌영 회장의 자녀인 이민규(15.94%)와 이시은(15.94%)의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64.10%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이좌영 회장은 1979년 일신산업을 창업하며 사출 사업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삼양화학에서 생산부장을 거친 뒤, 1993년 동사를 설립하며 자동차 부품 사출 사업을 이어갔다. 한편 이좌영 회장은 2022년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증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두 자녀인 이민규(CEO), 이시은(CFO)과 함께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며 경영 승계를 본격화했다.

유니테크노 주주구성(1H26말 기준)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및 제품

**사출성형 기술 기반으로
자동차용 전장 모터, 엔진,
2차전지 부품 제조 사업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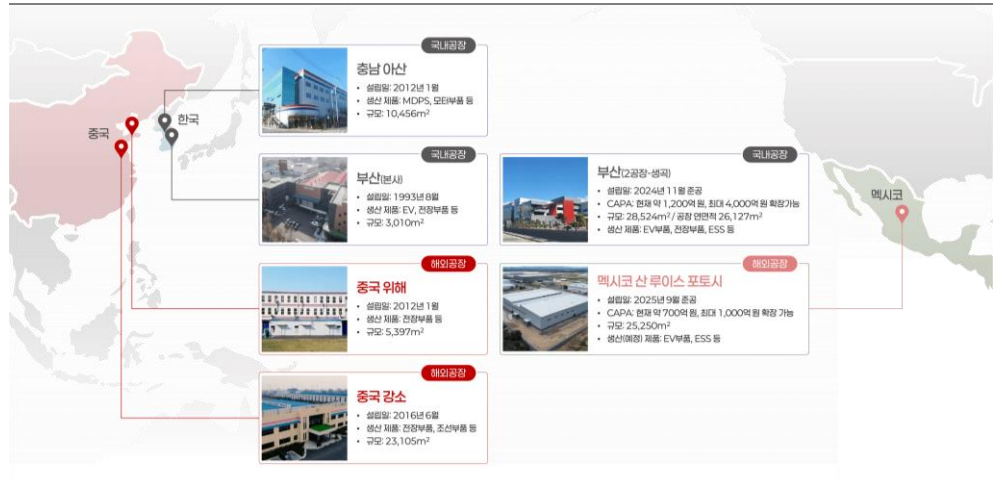
유니테크노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반의 정밀 사출성형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용 전장 모터 부품과 내연기관용 엔진 부품, 2차전지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동차의 조향과 제동, 변속 등에 적용되는 전장 모터용 정밀 사출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과 전기차(xEV) 배터리 부품 등으로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가정용 ESS 부품 사업을 산업용 ESS로 확대하는 한편, 로봇용 액추에이터 부품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사출성형은 플라스틱 소재를 가열해 녹인 뒤 금형에 주입해 원하는 형태의 부품을 제조하는 공법으로, 동사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은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정밀 사출성형 기술과 금속/플라스틱을 일체화하는 인서트 사출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용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속 부품의 플라스틱 대체에 따른 경량화와 조립 공정 축소를 통한 생산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국내(별도법인)는 부산과 충남 아산, 해외(종속회사)는 중국과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세방리튬배터리, LSEV 코리아, 삼성SDI, 디와이오토 등 약 25개의 자동차 부품 및 2차전지 부품 제조업체(1차 협력사)로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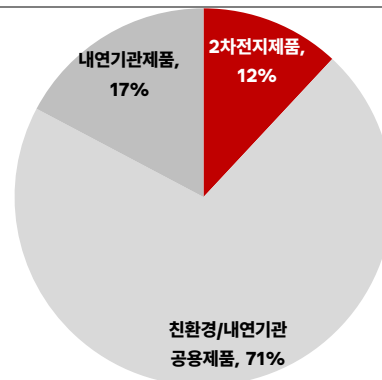
2025년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사급거래 전 기준)은 친환경/내연기관 공용 제품 71%, 내연기관 제품 17%, 2차전지 제품 12%로 구성되며 제품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니테크노 생산거점 현황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제품별 매출비중(2025년 기준)



주: 별도, 사급거래전 기준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친환경/내연기관공용제품 (매출비중 71%)

주력 제품군인 친환경/내연기관 공용제품은 EPS/SBW/EPB 등에 적용되는 전장 모터용 부품으로 구성

친환경/내연기관 공용 제품은 동사의 주력 사업으로, 자동차의 조향과 제동, 변속 및 편의장치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전장 모터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전동식 조향장치(EPB)에 적용되는 로터와 기어박스,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SBW)용 하우징,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용 모터 부품 등이 있다. 이외에도 파워윈도우와 선루프 등 차량의 편의장치에 적용되는 모터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모터 내부에서 회전 및 동력 전달을 보조하거나 주요 구성품을 고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동차의 조향과 제동, 변속 등 주요 제어장치가 기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모터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터 내부에 사용되는 정밀 사출 부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전장화에 대응해 조향과 제동, 변속 등 주요 제어장치에 적용되는 전장 모터용 부품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SBW)와 스마트 인히비터 관련 부품을 비롯해 조향 액추에이터 및 회생제동 관련 부품 등으로 개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개별 사출 부품에서 로터 서브 조립품 등 조립품 단위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내연기관제품 (매출비중 17%)

내연기관제품 부문은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에 적용되는 정밀 사출부품으로 구성

내연기관 제품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등에 적용되는 정밀 사출 부품으로, 주요 제품은 가변 흡기 밸브(VIS Valve), 통합열관리밸브(ITM) 관련 부품, 각종 구동용 플라스틱 기어 등으로 구성된다. 가변 흡기 밸브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 흡입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엔진의 출력과 연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열관리밸브는 엔진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해 적정 작동 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외에도 엔진과 변속기 내부에서 동력을 전달하거나 각종 구동장치의 작동을 보조하는 플라스틱 기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엔진 및 변속기 주변 부품은 높은 온도와 진동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만큼 동사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존 금속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함으로써 부품의 중량을 줄이고 제조공정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차전지제품 (매출비중 12%)

2차전지제품 부문은 차량용 배터리 부품과 ESS 부품으로 구분

2차전지 제품은 크게 차량용 배터리 부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으로 구분된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주요 품목은 배터리 셀 케이스와 모듈 케이스, 셀 홀더, 버스바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다. 셀 케이스와 모듈 케이스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셀 홀더는 배터리 셀을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하고 정렬하는 데 사용된다. 버스바 프레임은 배터리 내부의 전력 연결 부품인 버스바를 고정하고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SS 부품은 가정용 및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에 적용되는 배터리 구조 부품으로, 주요 제품은 셀 홀더와 모듈 케이스, 엔드플레이트, 버스바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다. 셀 홀더와 모듈 케이스는 배터리 셀을 고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엔드플레이트는 배터리 모듈의 양 끝단에서 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데 사용된다. 버스바 하우징은 배터리 내부의 전력 연결 부품을 보호하고 절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사는 기존 가정용 ESS 부품 공급을 기반으로 산업용 ESS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산업용 ESS 부품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대형 구조 부품을 중심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비모빌리티		
	엔진 및 모터 부품	Hybrid / PHEV	EV / Battery 부품	가정용 ESS	산업용 ESS
주요 제품	<p>SHIFT BY WIRE 및 엔진, 모터 부품</p>	<p>Theta 2.0/2.4 L 엔진 Kappa 1.0L NA/TCI & 1.25L 엔진 Nu 1.8/2.0 L 엔진</p>	<p>12V BATTERY CELL CASE 부품</p>	<p>CELL HOLDER</p>	<p>BUSBAR HSG SUB ASSY</p>
주요 고객사	LG 이노텍 SAMHYUN SNT Motiv UNICK	BURADA WARNER	SAMSUNG SDI	SEBANG 세방리튬배터리 ASENTEC LS EV Korea	
최종 수요처	TOYOTA HONDA HYUNDAI KIA RIVIAN STELLANTIS				

The diagram illustrates the various components of a car chassis, categorized into different functional groups. The components are connected to a central car chassis image by red lines, indicating their location and function. The components are as follows:

- Controller Case Sub**
- Stator Sub**
- Rotor**
- Stator**
- EOP**
- MDPS**
- Rotor**
- Gear Box**
- Valve Head**
- ERCV**
- Sunroof Motor**
- Brush Holder**
- VIS Valve**
- Engine**
- Power Window**
- Frame**
- Bobbin Ass'y**
- EPB**
- MOC**
- Case**
- ITM**
- SBW**
- Housing**
- Ball Valve**
- Shift Motor**
- Smart Inhibitor**
- Rotor**
- DCT**
- End Bell**
- Brush Card**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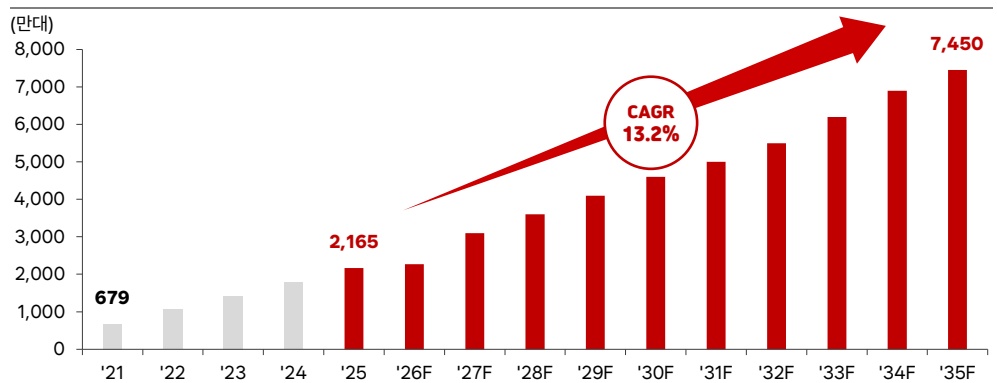
산업 현황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과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시장 확대

전기차 시장은 차량 전동화 확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최근 캐즘(Chasm)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차량 전동화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시장 규모는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BEV+PHEV+FCEV) 인도량은 2021년 679만대에서 2025년 2,165만대(+21.8% YoY)로 증가하며 2021~2025년 연평균 3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6년 1~8월 누적 인도량 또한 1,373만대로 YoY 5.9% 증가하였는데, 중국은 전년도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높은 기저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인도량이 부진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인도량은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28.9%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 Volumes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 이후 2035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해 7,4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추이 및 전망



주: BEV+PHEV+FCEV 합산 인도량

자료: EV Volume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국들의 전동화 관련 정책
강화, 경제성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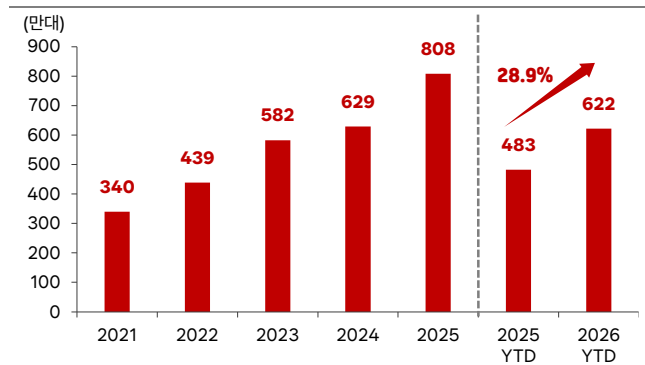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은 주요국들의 전동화 관련 정책 강화, 경제성 개선,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전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2021년 발표한 'Fit for 55' 정책을 통해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시장을 전동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배출량 규제 적용 방식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으나, 탄소 배출 저감과 전동화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기차 보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향상과 생산 규모 확대, LFP 배터리 적용 확대 등에 힘입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 가격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역시 기존 일부 프리미엄 모델 중심에서 벗어나 소형 SUV, 세단, 픽업트럭,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시 전기차 모델 수 역시 2023년 303개에서 2024년 399개, 2025년 515개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전기차 인도량은 2025년 447만대로 전년대비 35.9% 증가하였으며, 2026년 1~8월 누적 인도량 역시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회복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과거 축소 또는 폐지했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독일은 2023년 말 전기차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이 27.4% 감소하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2026년부터 개인 구매보조금을 재도입하였다. 영국 역시 2022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수요가 둔화되자 2025년부터 중저가 전기를 대상으로 구매 지원 정책을 재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도 전기차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원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역시 이러한 에너지 시장 변화와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반영해 2035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를 기존 67%에서 최대 8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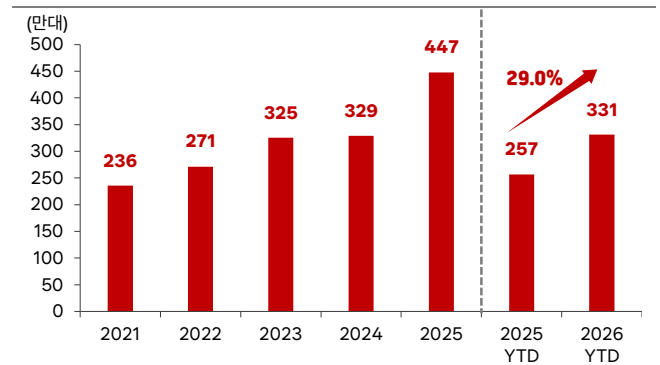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추이



주: YTD는 1월~8월 수치

자료: EV Volumes, SNE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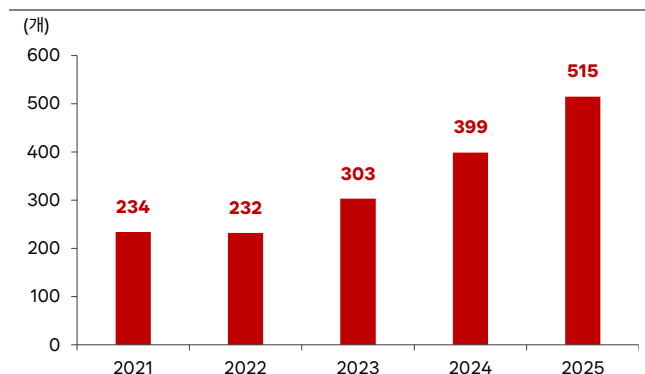
유럽 전기차 인도량 추이



주: YTD는 1월~8월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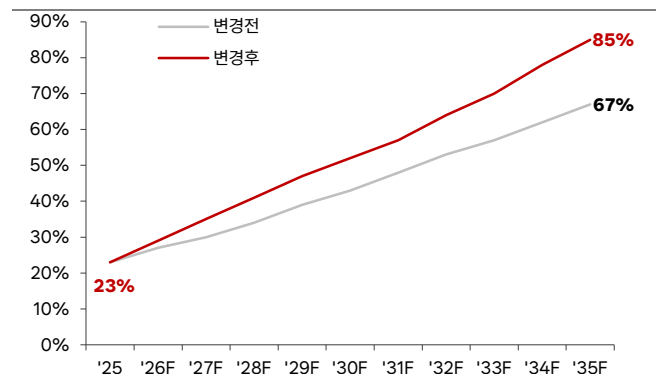
자료: EV Volumes, SNE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전기차 신규 출시 모델 수 추이



자료: EV Volume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란 전쟁 이후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 변화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국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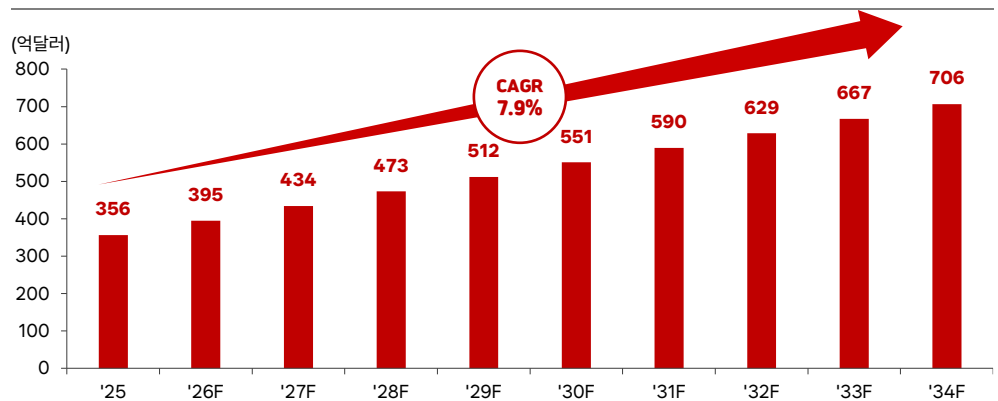
국가	정책 변화	세부 내용
독일	보조금 재도입	2023년 말 보조금 폐지 → 2026년 구매지원 재개, 최대 6천 유로 지원
영국	보조금 재도입	2022년 승용 EV 보조금 폐지 → 2025년 중저가 EV 구매지원 재개
프랑스	지원 확대	2026년 구매지원 최대 5,700 유로, 유럽산 배터리 추가 지원
중국	보조금 축소	2026년 구매세 혜택 축소/이구환신 보조금 가격연동 전환
미국	보조금 폐지	2025년 9월 연방 EV 세액공제 폐지, 일부 주정부 별도 지원 시행
일본	보조금 확대	2026년 CEV 구매보조금 유지, 차량별 지원기준 개편
한국	보조금 확대	2026년 구매보조금 유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언론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확대로 경량화 수요
증가하면서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은 2034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할 전망**

전기차 시장 확대는 관련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시장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배터리 탑재에 따른 차량 중량 증가로 경량화의 중요성이 높으며, 전장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내열성, 절연성 및 내구성 을 갖춘 고성능 플라스틱 부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조향, 제동, 변속 및 편의장치 등 자동차 전반의 전장화 가 진행되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반의 정밀 사출 부품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셀 케이스와 모듈 케이스 등 전기차 전용 부품에서도 플라스틱 소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은 2025년 356억달러에서 2034년 706억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7.9%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자동차 전장 모터용 정밀 사출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전기차용 2차전지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유니테크노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자동차 플라스틱 시장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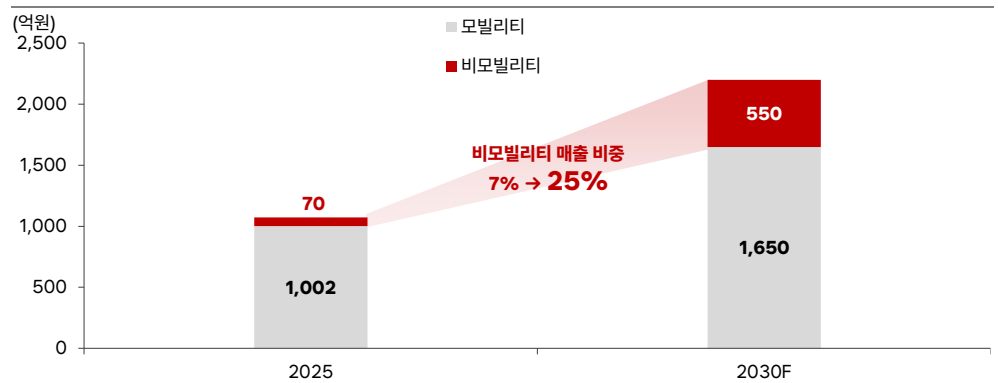
1 산업용 ESS, 피지컬 AI 등 비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2030년까지 비모빌리티 부문 매출 비중을 25%로 확대

유니테크노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축적한 정밀 사출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비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은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정밀 사출성형 기술과 금속/플라스틱을 일체화하는 인서트 사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기존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정밀 부품으로 제품 군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ESS 부품과 피지컬 AI 등 기타 첨단산업 관련 부품 중심으로 비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모빌리티 부문 매출액을 2025년 70억원에서 2030년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니테크노 2030년 매출 목표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2026년 북미향 산업용 ESS 수주를 기반으로, 향후 실적 기여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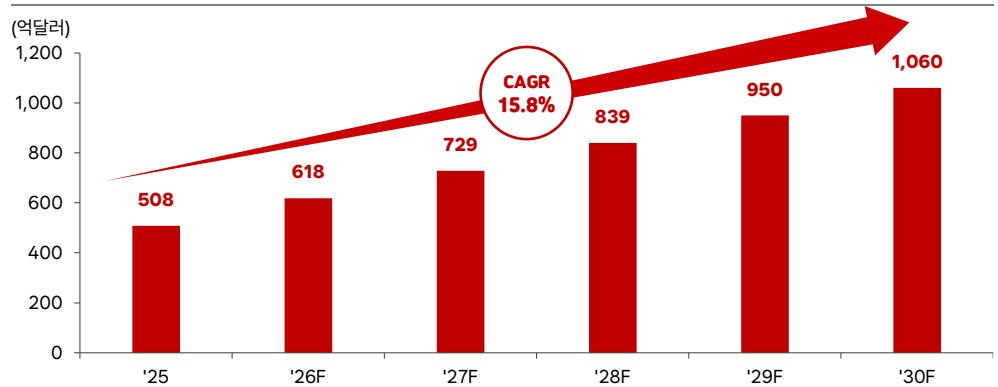
[산업용 ESS 부품]

산업용 ESS 부품은 비모빌리티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 기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글로벌 ES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등을 배경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동사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모듈용 부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저장 시스템(BESS) 시장은 2025년 508억 달러에서 2030년 1,060억 달러로 연평균 1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기존 가정용 ESS 부품의 개발 및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용 ESS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용 ESS는 가정용 대비 배터리 시스템의 규모가 크고 대용량 전력의 저장 및 공급이 필요한 만큼, 배터리 셀과 모듈을 지지하고 전력 연결 부품을 보호하는 구조 부품이 필요하다. 동사는 대형 전동 사출설비와 정밀 인서트 사출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셀과 모듈을 고정·보호하는 케이스류와 전력 연결 부품을 절연/보호하는 버스바 하우징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북미향 산업용 ESS 부품을 중심으로 수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북미향 산업용 ESS 부품을 수주해 같은 해 10월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2031년까지 연간 약 60억원 규모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2026년 10월 산업용 ESS용 부품을 추가 수주했으며, 2027년 양산을 시작해 2028~2031년 총 440억원(연간 약 110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주 건 모두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인 L사에 납품되는 제품으로 향후 기존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신규 수주가 더해지면서 산업용 ESS 사업의 실적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L사향 납품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추가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배터리 ESS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산업용 ESS 사업 관련

소재 대체 수요로 가전용 ESS 시장 진출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용 ESS 시장으로 확장



**특수관계사인 엔엠씨(NMC)와
협력해 피지컬 AI 시장에 진출
중이며, 조선·방산·드론 등으로
사업 확대 추진**

[피지컬AI 등 기타 첨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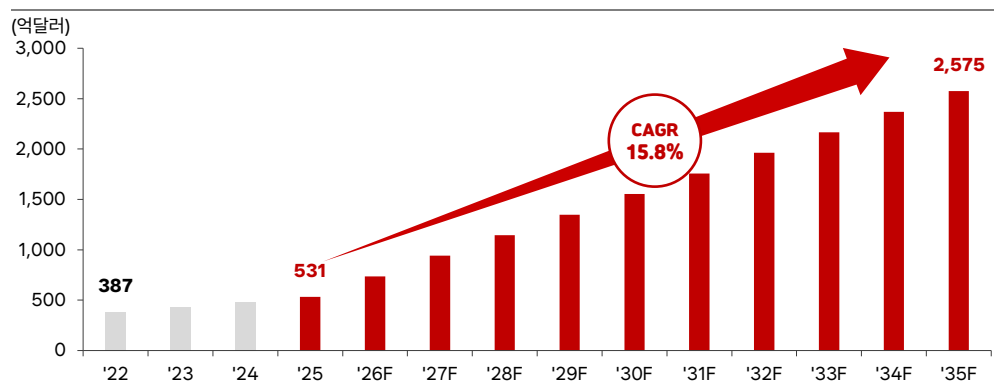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로봇 구동계에 적용되는 정밀 사출 부품과 모듈화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전반의 자동화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5년 531억 달러에서 2035년 2,575억 달러로 연평균 1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등에 적용되는 구동장치의 경량화와 정밀도가 중요해지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 정밀 사출 부품의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2025년 10월 피지컬 AI 양산기술 연구소를 신설하고, 2026년 3월 로봇 및 자동화장치용 부품/모듈/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한 특수관계사인 엔엠씨(NMC)와 협력해 로봇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엔엠씨는 모터 및 구동계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유니테크노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축적한 정밀 사출성형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구동계용 플라스틱 부품과 하우징, 모듈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AMR용 액추에이터에 적용되는 정밀 사출 부품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과 고객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4월부터 관련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 고객사 검증을 거쳐 본격적인 양산으로 이어질 경우 로봇 시장에서의 신규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동사는 보유한 사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선과 방산,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 분야에서는 일부 모터용 부품의 생산 및 납품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산과 드론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사인 엔엠씨가 장갑차 및 다목적 전술차량용 구동계 부품과 AI 드론용 모터 등의 선행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과 대량 양산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신규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미래 모빌리티 부품 관련 사업 계획

EP 사출 기술 활용해 생산 가능한 피지컬 AI 부품 예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은 피지컬 AI 모듈의 종류 상관없이 전 방위적으로 적용 가능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미래 모빌리티 부품 관련 사업 계획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가치제고계획 발표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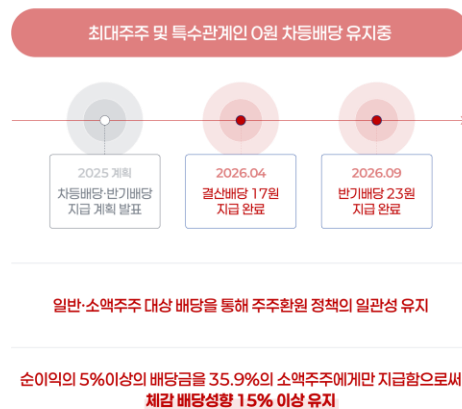
무배당 기초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 배당 지급 및 차등배당 정책 도입

유니테크노는 2025년 9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 2030년 매출액 2,000억원 달성, 2) 2027년부터 영업이익률 7% 이상 유지, 3) 2030년까지 PBR 1.0배 및 ROE 10% 이상 달성, 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배당을 통한 차등배당 실시, 5) 2026년부터 반기배당 시행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2026년 9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을 발표하며 2030년 매출 목표를 기존 2,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모빌리티 부문 매출 비중 목표 역시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2026년 영업이익률은 7.2%로 전망되며 영업이익률 7% 이상의 수익성 목표를 조기에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은 동사가 기존 무배당 기초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 배당을 시행하며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사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17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6년 9월 주당 23원(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5.0%)의 반기배당을 실시하며 기존에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2026년 연간 주당배당금은 38원(배당성향 5.0%, 배당수익률 1.5%) 수준으로 예상되며, 배당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으나 차등배당과 반기배당 등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유니테크노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주주소통 / IR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신규 공장 준공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 영향으로 영업이익
전년대비 큰 폭 감소

유니테크노의 2025년 매출액은 1,072억원(+1.9% YoY), 영업이익은 21억원(-74.7% YoY)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일부 전기차 관련 물량 공급 지연으로 2차전지제품 매출액(별도/사급거래전 기준)이 149억원(-34.2% YoY)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품 공급 확대로 친환경/내연기관공용제품 매출액이 921억원(+17.5% YoY)을 기록하면서 전사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신규 생산시설인 부산 2공장 및 멕시코 공장 준공에 따른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1.9%(-5.8%p YoY)로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한편 지배주주순이익은 -32억원(-138억원 YoY)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였다. 이는 2024년 CB, BW 관련 평가이익 발생에 따른 역기저효과(-51억원)와 보유 금융자산 평가손실 증가(-41억원), 이자비용 증가(-20억원) 등의 영향으로 영업외이익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1H26 실적 리뷰 및 2026 실적 전망

1H26 실적 리뷰

친환경/내연기관 공용 부품 공급
확대 영향과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큰
폭 증가

유니테크노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626억원(+17.9% YoY), 영업이익은 43억원(+103.3% YoY)을 기록하며 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친환경/내연기관공용제품 매출액(별도/사급거래전 기준)은 516억원(+18.2% YoY)을 기록하며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다.

한편 영업이익률은 6.9%(+2.9%p YoY)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전년도 신규 공장 설비 이전 및 안정화 과정에서의 일회성 비용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산 2공장의 가동률 상승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16.8%(+3.2%p YoY)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2026 실적 전망

부품 공급 확대, 전년도 일회성
비용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
영업레버리지 효과 등과 함께
영업이익 큰 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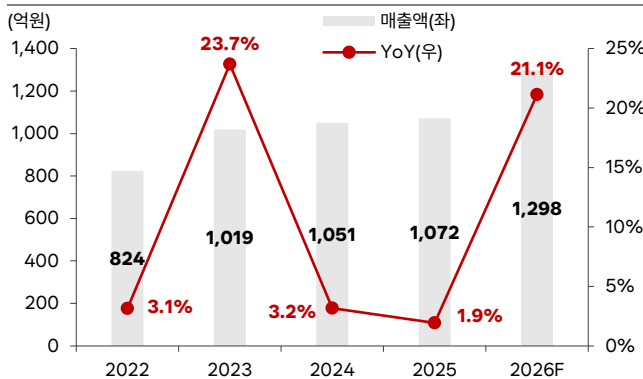
2026년 매출액은 1,298억원(+21.1% YoY), 영업이익은 94억원(+355.2% YoY)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며 관련 부품 공급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2) 전년도 신규 공장 설비 이전 및 안정화 과정에서의 일회성 비용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며, 3) 설비 구축을 완료한 부산 2공장을 중심으로 전사 가동률 상승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7.2%(+5.3%p YoY)로 전년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 성장세가 둔화된 이후 2025년부터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사

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을 살펴보면, 2024년 629만 대(+8.0% YoY)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25년에는 808만대(+28.5% YoY)로 증가하며 성장률이 반등하였다. 2026년 1~8월 누적 인도량 역시 622만대(+28.9% YoY)를 기록하며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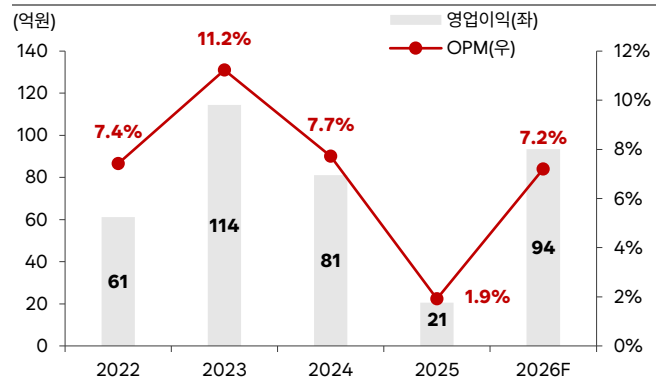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회복은 동사의 실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동화 구동계 및 열관리 시스템 등에서 추가적인 전장 부품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내열성과 절연성 등을 갖춘 고기능성 플라스틱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사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전장 모터용 정밀 사출 부품의 수요 증가와 신규 부품 적용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용 2차전지 부품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동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니테크노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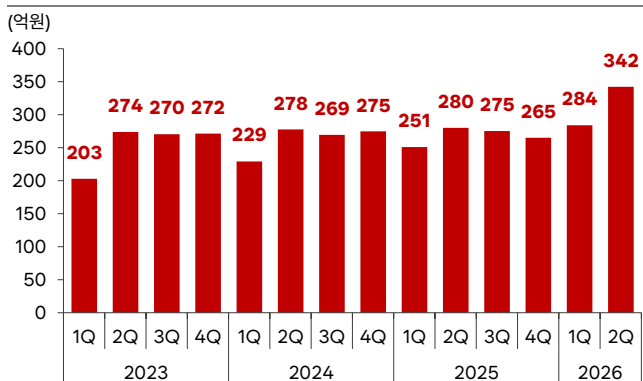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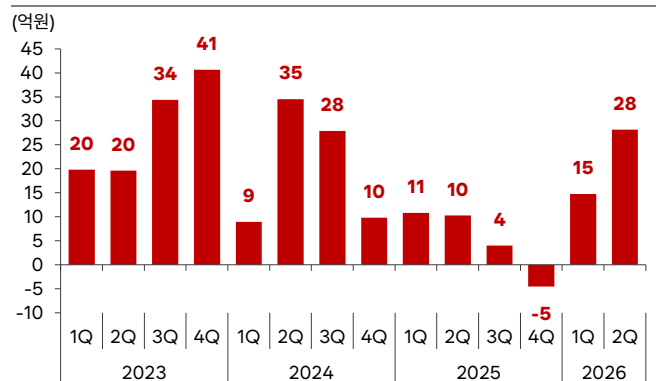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연결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실적 테이블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824	1,019	1,051	1,072	1,298
(YoY)	31%	23.7%	3.2%	1.9%	21.1%
친환경/내연기관공용제품	N/A	638	783	921	1,088
2차전지제품	N/A	269	226	149	187
내연기관제품	N/A	196	234	224	220
매출총이익	135	194	171	128	218
(YoY)	-4.6%	44.1%	-12.0%	-25.2%	70.4%
영업이익	61	114	81	21	94
(YoY)	-17.7%	87.0%	-29.1%	-74.7%	355.2%
영업이익률	7.4%	11.2%	7.7%	1.9%	7.2%
세전이익	66	114	115	-47	80
지배주주순이익	49	91	106	-32	73
(YoY)	-48.2%	86.9%	16.6%	적전	흑전

주: 제품별 매출은 별도, 사급거래전 기준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분기별 실적 테이블

(단위: 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229	278	269	275	251	280	275	265	284	342
(YoY)	13.0%	1.4%	-0.4%	1.2%	9.4%	0.9%	2.2%	-3.6%	13.2%	22.1%
친환경/내연기관공용제품	174	203	197	209	203	234	251	232	254	263
2차전지제품	60	61	60	44	49	44	24	31	30	63
내연기관제품	53	61	62	58	57	56	57	53	53	58
매출총이익	31	57	50	33	38	34	31	25	46	59
(YoY)	-19.3%	48.7%	-9.8%	-46.5%	20.7%	-39.5%	-37.5%	-25.4%	21.6%	72.5%
영업이익	9	35	28	10	11	10	4	-5	15	28
(YoY)	-55.0%	76.0%	-18.8%	-75.8%	21.7%	-70.2%	-85.7%	적전	36.0%	174.4%
영업이익률	3.9%	12.4%	10.4%	3.6%	4.3%	3.7%	1.5%	-1.7%	5.2%	8.2%
세전이익	11	52	24	27	5	5	-3	-55	11	34
지배주주순이익	9	43	20	34	5	5	-2	-40	9	32
(YoY)	-42.0%	147.2%	-9.1%	-5.4%	-49.8%	-88.1%	적전	적전	95.2%	521.4%

주: 제품별 매출은 별도, 사급거래전 기준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년 예상 PBR 0.47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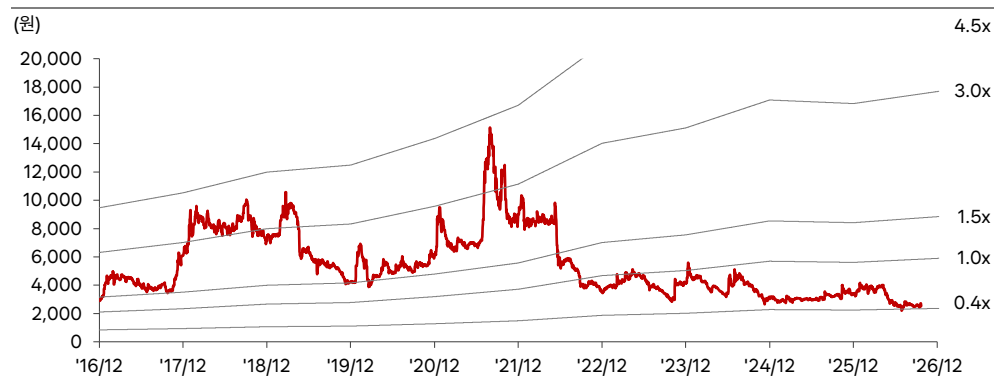
ROE 개선과 배당수익률 확대가 밸류에이션 회복에 중요한 변수

당사 추정 기준 유니테크노의 2026년 예상 PBR은 0.47배로 최근 10년 평균인 1.54배 대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과거 2018년 현대차그룹의 수소차 넥쏘 공개와 함께 동사가 관련 브레이크 부품 공급업체로 주목받으면서 PBR이 4.0배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삼성SDI의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향 배터리 공급과 관련해 동사가 배터리 셀케이스 협력사로 부각되면서 PBR이 4.3배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과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으로 주가 조정이 지속되면서 현재 PBR은 2016년 상장 이후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0.4~4.3배)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Peer그룹으로는 동사와 유사하게 자동차용 부품 및 2차전지 관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엠앤디, 인팩, 인지컨트롤스를 선정하였다. Peer그룹의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부재한 점을 감안해 TTM(3Q25-2Q26)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동사의 TTM PBR(10/22 종가기준)은 0.44배, ROE는 -0.1%로 Peer그룹 평균인 PBR 0.36배, ROE 4.8%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다(다만 동사의 2026년 예상 ROE는 5.2%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 있음).

한편 동사의 2026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1.5%로 2025년 기준 Peer그룹 평균 2.8%와 국내 자동차부품 상장사 평균 2.6%를 하회하고 있어 상대적인 배당 매력도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26년 예상 ROE가 5.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무배당 기조에서 벗어나 2025년 결산배당을 시작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향후 ROE의 추가적인 개선과 배당 규모 확대가 밸류에이션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니테크노 PBR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크노 Peer그룹 테이블

(단위: 억원)

구분		유니테크노	나라엠앤디	인팩	인지컨트롤스
주가(10/22, 원)		2,530	2,480	5,440	8,150
시가총액(10/22)		619	352	544	745
매출액	2024	1,051	2,038	5,639	6,493
	2025	1,072	1,846	5,864	7,179
	TTM	1,167	1,840	6,421	7,230
	2026F	1,298	N/A	N/A	N/A
영업이익	2024	81	50	200	264
	2025	21	-1	198	396
	TTM	42	-43	124	369
	2026F	94	N/A	N/A	N/A
OPM(%)	2024	7.7	2.4	3.6	4.1
	2025	1.9	0.0	3.4	5.5
	TTM	3.6	-2.4	1.9	5.1
	2026F	7.2	N/A	N/A	N/A
지배주주순이익	2024	106	36	23	102
	2025	-32	53	120	161
	TTM	-1	3	56	240
	2026F	73	N/A	N/A	N/A
PER(배)	2024	7.0	14.8	24.8	8.8
	2025	N/A	10.5	7.5	6.3
	TTM	N/A	135.3	9.7	3.1
	2026F	8.5	N/A	N/A	N/A
PBR(배)	2024	0.53	0.53	0.46	0.41
	2025	0.60	0.53	0.68	0.44
	TTM	0.44	0.35	0.41	0.31
	2026F	0.43	N/A	N/A	N/A
ROE(%)	2024	8.0	3.6	1.9	4.7
	2025	-2.3	5.1	9.3	7.1
	TTM	-0.1	0.3	4.3	9.9
	2026F	5.2	N/A	N/A	N/A
배당수익률(%)	2024	N/A	2.4	3.1	2.6
	2025	0.5	2.3	2.0	4.2
	2026F	1.5	N/A	N/A	N/A

주: 2026년 유니테크노 실적은 당사 추정치, 나머지는 시장컨센서스 부재 / TTM = 3Q25-2Q26,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메자닌 발행에 따른 잠재적 오버행 및 상환 부담

미상환 CB 및 BW의 잠재주식
비중은 26.16%로,
오버행 또는 상환 부담 존재

유니테크노는 2023년 8월 공장 신설과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메자닌을 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회 전환사채(50억원), 제3회 전환사채(150억원),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100억원)로 구성되며, 만기일은 모두 2028년 8월 4일이다. 이 중 제2회 전환사채는 2026년 2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20억원이 상환되어 현재 미상환 잔액은 총 280억원이다.

해당 사채들은 전환청구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분 희석 및 오버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 가능한 잠재주식 수는 총 867만주이며, 이는 전환 후 총 발행주식 수의 26.1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사채들의 전환(행사)가액은 세 차례의 리픽싱을 거쳐 3,229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른 리픽싱 최저 한도 금액이기에 추가로 하향 조정될 여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동사의 주가가 전환(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수준이기에 전환 및 행사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향후 주가가 3,229원을 상회할 경우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전환(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또는 만기 도래에 따른 현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니테크노 CB, BW 전환(행사)에 따른 지분을 변화

(단위: %)

	전환(행사) 전 지분율	전환(행사) 후 지분율
기존주식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4.10	47.32
기타주주	35.90	26.51
잠재주식		
제2회 전환사채(한국투자증권)	-	2.80
제3회 전환사채(유니성장)	-	14.02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유니성장)	-	9.34
합계	100	100

주: 발행 CB 및 BW 전량 전환(행사) 가정

자료: 유니테크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824	1,019	1,051	1,072	1,298
증가율(%)	3.1	23.7	3.2	1.9	21.1
매출원가	689	824	880	944	1,080
매출원가율(%)	83.6	80.9	83.7	88.1	83.2
매출총이익	135	194	171	128	218
매출이익률(%)	16.4	19.1	16.3	12.0	16.8
판매관리비	74	80	90	108	125
판매관리비율(%)	9.0	7.9	8.6	10.1	9.6
EBITDA	101	154	125	79	158
EBITDA 이익률(%)	12.3	15.1	11.9	7.4	12.2
증가율(%)	-8.8	51.7	-18.8	-36.7	99.4
영업이익	61	114	81	21	94
영업이익률(%)	7.4	11.2	7.7	1.9	7.2
증가율(%)	-17.7	87.0	-29.1	-74.7	355.2
영업외손익	4	-1	34	-68	-13
금융수익	12	17	72	24	29
금융비용	11	26	42	102	51
기타영업외손익	3	9	4	11	9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66	114	115	-47	80
증가율(%)	-36.2	72.9	1.1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17	22	9	-15	8
계속사업이익	49	91	106	-32	7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9	91	106	-32	73
당기순이익률(%)	5.9	9.0	10.1	-3.0	5.6
증가율(%)	-48.5	86.9	16.6	적전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9	91	106	-32	7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3	100	129	2	95
당기순이익	49	91	106	-32	73
유형자산 상각비	38	37	42	57	62
무형자산 상각비	2	3	2	2	2
외환손익	2	11	10	1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8	-41	13	-69	-39
기타	0	-1	-44	32	-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4	-464	-215	-158	-10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47	2	-23	-29	-0
유형자산의 감소	0	2	1	4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09	-198	-416	-178	-100
기타	38	-270	223	45	-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4	354	150	111	11
차입금의 증가(감소)	-24	54	150	67	13
사채의증가(감소)	0	30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1
기타	-20	0	0	44	-1
기타현금흐름	-1	0	9	-5	2
현금의증가(감소)	-87	-11	72	-50	0
기초현금	225	139	128	199	149
기말현금	139	128	199	149	149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430	815	610	596	691
현금성자산	139	128	199	149	149
단기투자자산	1	304	54	42	50
매출채권	155	231	172	205	249
재고자산	116	120	131	121	147
기타유동자산	19	33	53	79	95
비유동자산	1,125	1,282	1,700	1,801	1,837
유형자산	1,021	1,156	1,522	1,606	1,644
무형자산	14	15	35	39	37
투자자산	47	46	75	58	58
기타비유동자산	43	65	68	98	98
자산총계	1,555	2,097	2,311	2,398	2,528
유동부채	227	398	665	986	1,039
단기차입금	10	40	69	140	140
매입채무	82	124	86	95	115
기타유동부채	135	234	510	751	784
비유동부채	159	439	252	38	46
사채	0	193	0	0	0
장기차입금	101	66	194	0	0
기타비유동부채	58	180	58	38	46
부채총계	385	837	917	1,024	1,085
지배주주지분	1,170	1,260	1,394	1,373	1,442
자본금	125	125	125	125	125
자본잉여금	145	145	145	145	145
자본조정 등	-47	-47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25	224	251	263	263
이익잉여금	723	814	873	841	910
자본총계	1,170	1,260	1,394	1,373	1,44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7.9	11.3	7.0	N/A	9.3
P/B(배)	0.7	0.8	0.5	0.6	0.5
P/S(배)	1.1	1.0	0.7	0.8	0.5
EV/EBITDA(배)	9.2	7.6	9.5	18.1	8.1
배당수익률(%)	0.0	0.0	0.0	0.5	1.4
EPS(원)	195	365	434	-131	297
BPS(원)	4,677	5,039	5,696	5,612	5,895
SPS(원)	3,293	4,074	4,289	4,379	5,305
DPS(원)	0	0	0	17	38
수익성(%)					
ROE	4.7	7.5	8.0	-2.3	5.2
ROA	3.4	5.0	4.8	-1.4	2.9
ROIC	10.3	7.0	4.7	-0.3	4.8
안정성(%)					
유동비율	189.8	204.6	91.8	60.5	66.4
부채비율	32.9	66.4	65.8	74.6	75.2
순차입금비율	5.4	11.1	32.1	44.1	42.3
이자보상배율	10.7	7.5	5.8	0.6	2.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6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5.5	5.3	5.2	5.7	5.7
재고자산회전율	7.4	8.6	8.4	8.5	9.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유니테크노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27	유니테크노(241690)-사출기술로 넓혀가는 성장스토리
2025.11.12	유니테크노(241690)-산업용 ESS 부품 시장 진입에 따른 중장기 매출 성장 기대
2023.03.16	유니테크노(241690)-친환경차 부품 매출 성장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항목은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